

TV 24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5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Rows list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EBS

Table listing EBS programs such as World News Review, EBS 특강, and various news and educational shows.

EBS플러스1

Table listing EBS Plus 1 programs including EBS 특강, 시사시리즈, and various educational content.

EBS플러스2

Table listing EBS Plus 2 programs including EBS 특강, 시사시리즈, and various educational content.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24일(음 5월 27일 丙寅)

Table of horoscopes for various zodiac signs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with corresponding animal icons and text.

신해철, 서태지 도발 “올 가을 끝장내자”

6년만에 6집 ‘리부트 마이셀프’ 발표

“엄청 감개무량해야 할 것 같은데 사실 조금 정신이 없어요. 혼이 나간 거 같아요. 지난 6년간 트레이닝북을 입고 살다가 이런 걸(무대 의상) 입으니 ‘아, 내가 연예인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KCA엔터테인먼트 제공〉

최근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공연장에서 열린 솔로 6집 ‘리부트 마이셀프’(Reboot myself) 쇼케이스에서 그를 만났다. 노래 가사나 곡 설명에서 독설은 여전하지만 여유로운 해학이 완

6집은 지난 2008년 넥스트 6집 ‘트릴로지(Trilogy) 파트 I’ 이후 6년 만의 신보이며, 솔로로는 지난 2007년 재즈를 접목한 5집 ‘더 송스 포 더 원’(The Songs For the One) 이후 7년 만의 정규 앨범이다.

“저는 유행가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들었을 때 크게 부담 가지 않을 곡을 담았습니다. 내용적으로는 그동안 ‘자아’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이번에는 가족 등 내게 중요한 것들에 대해 노래했죠.”

먼저 앨범 제목으로 2집 ‘마이셀프’를 ‘리부트’(재시동하다) 한다는 의미를 댄 것이 눈에 들어온다.

1000개 이상 녹음 트랙에 목소리만 중복 녹음해 만든 ‘장인 정신’이 느껴지는 원본 아카펠라 곡 ‘아미’에 대해 그는 “보통 정도 입술이 부어서 타질 정도로 고생하며 녹음했다”면서 “길게 보면 아카펠라 앨범 하나를 통째로 낼 수 있을 정도로 1년 반 이상 녹음하고 그걸 기반으로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에게 쓰는 편지”와 비슷한 느낌의 ‘단 하나의 약속’은 앨범에서 가장 귀에 쉽게 들어오는 곡이다. 아내와 만남을 시작하던 시절 만든 마지막 리부트곡으로 15년간 틈틈이 손질하다 이번에 내놓았다 한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향하는 ‘아프지만 마라’라는 메시지를 담았다.

밴드로는 6년, 솔로로는 7년 만의 컴백이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

“스무살에 데뷔해 가장 긴 공백기였어요. 전까지는 1년 이상 쉬지 않았는데 6년 쉬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놀랐어요. 그렇게 활동을 접었는지 실감이 안났죠. 생활패턴이나 사고방식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어요. 가족과 가까이 지내며 인생의 새로운 시기가 시작됐죠.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사는 것 같습니다.”

이날 신해철은 6년만에 재결성된 밴드 넥스트의 형태로 공개했다. 흡사 ‘죽구팀’이 연상되는 형태다.

“가을부터 움직이는 넥스트는 전과는 다른 형식입니다. 가창이 넥스트 유니티드에서도, 일종의 오케스트라 시스템입니다. 기타리스트 정기승 씨가 수석으로 전체 밴드를 조율하고 각 파트별로 여러명이 있는거죠. 1~4군에 청소년 넥스트도 만들

거예요. 다 모이면 유니티드가 되는 거죠. 지금 멤버가 20명을 넘어섰어요.”

그는 특히 “노바소닉”의 보컬 이현섭 씨를 넥스트의 다른 보컬로 영입했다”면서 ‘투 리드 보컬’ 체제로 팀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해철이 오랜만에 복귀하면서 친한 다른 뮤지션과의 교감도 화제였다. 월스타 싸이는 그의 ‘아미’ 뮤직비디오를 트위터에 소개하며 ‘역시’라고 감탄의 메시지를 남겼다. 새 음반을 준비중인 서태지와도 곡작업 과정에서 교감이 있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태지가 ‘아미’를 타이틀로 골랐어요. 다른 곡들은 ‘형은 편안하다고 생각하는데 결코 쉽지 않아’라고 조언했죠. 태지가 더 쉽게 하라고 저의 ‘영덩이’를 많이 때렸죠. 가을에 그 친구 앨범이 나오니 ‘누가 음악을 그만둘지 모르지만 승부하. 끝장을 내자’라고 얘기했었어요.”

1988년 대학가요제 이후 26년간의 뮤지션 생활과 그동안 가장 길었던 지난 6년간의 공백은 그에게 어떤 깨달음을 줬을까.

“제 나이가 마흔셋입니다. 나이보다 젊어 보이기도 나이에 어울리는 모습의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려 합니다. 그동안 음악적 목표를 달성하려 힘들게 한 부분도 있는데 이제는 제 음악적 식탁에 앉은 사람들이 더 편안할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



왼쪽부터 전현무, 임승용, 애프터스쿨.

스타들, 대표팀 격려 “다음 경기도 응원 할게요”

23일 브라질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 알제리와의 경기에서 패배를 당한 한국 국가대표팀에 방송·연예계 스타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위로의 메시지를 건넸다.

이날 ‘두 손을 모으고 경기를 지켜봐달라’는 그룹 2AM의 일슬은 경기 종료 후 자신의 트위터에 “손흥민 선수 고개 들어요. 마음이 아프다”라고 적어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방송인 전현무도 트위터에 “선수들도 전방전을 많이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네요. 우리보다 더하면 더했지 달한 것 없을 거예요. 질책보다는 격려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자국이 벨기에전 대응으로 이어지길 기원합니다”라는 응원의 글을 적었다.

개그맨 이병진도 “태극전사 여러분. 그리고 붉은악마.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적어 차분하게 격려했다.

애프터스쿨 정아는 “태극전사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큰 부상 없이 끝까지 최선을 다한 모습에 감동했어요. 정말 선수분들 멋있네요”라고 격려했고, 레인보우 김지숙도 “국가대표팀 선수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경기도 응원할게요! 파이팅!”이라고 변함없이 응원했다.

한편 지난 조별리그 1차전에 이어 스타들의 ‘특별한’ 응원전도 이어졌다.

앞서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팬들과 현장 응원을 펼친 김보성은 이날 흥대 인근 롤링홀에서 일반인 100명을 초청해 ‘우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를 진행했다. 행사에서는 개그맨 김학도, 아프리카TV 유명 BJ들이 참여해 스타대사 중계, 조별 응원전, 응원댄스 등의 순서도 마련됐다.

굿바이 ‘도전천곡’

마지막 시청률 10.8%로 14년만에 종영

지난 14년간 방송된 연예인 노래대결 프로그램 SBS ‘도전천곡’이 22일 막을 내렸다.

23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오전 방송된 ‘도전천곡’의 마지막 299회 시청률은 10.8%를 기록했다. 이는 동시간대 1위의 성적으로, 같은 시간 방송된 KBS 1TV

‘산너머 남촌에는2’는 7.7%, KBS 2TV ‘1박2일 재방송’은 6.3%, MBC TV ‘월드컵 스페셜 꿈을 그리다’는 5.6%를 각각 기록했다.

지난 2000년 10월22일 시작한 이래 꾸준히 사랑받아온 ‘도전천곡’은 광고판매가 부진하다는 이유로 이번에 ‘정리해고’됐다.

14년 역사 중 절반을 함께 했던 MC 이휘재는 마지막회에서 “그동안 ‘도전천곡’을 사랑해주신 여러분 작별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다”며 “도전천곡이 14년간 방송됐고 저는 그중 7년을 함께했다. 그동안 쌍둥이 아빠도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후속으로는 토요일 방송되던 ‘잘 먹고 잘 사는 법, 식사하셨어요?’가 자리를 옮겨 방송된다. /연합뉴스